

국별 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221천 Km ²	GDP	2,858억 달러 (2009)
인구	50.11백만 명 (2009)	1인당 GDP	5,821달러 (2009)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Rand(R)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환율 (달러당)	8.47 (2009년 평균)

- 남아공은 5,011만 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보유한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금융, 비즈니스, 물류, 관광, 광업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9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Pretoria), 경제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관광 중심지이자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Capetown), 물류 항만 중심지인 더반(Durban) 등이 주요 도시임.
- 남아공 경제는 2007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 GDP의 27%, 수출입의 22%, 제조업 생산의 40%, 광물생산의 45%, 전력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부존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잘 발달된 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치안 불안, AIDS 확산, 강력한 노동조합 등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상존하고 있음.
- 1994년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을 철폐하고 흑백 통합정부를 구성한 이후, 집권 ANC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넬슨만델라와 음베키 대통령, 현 주마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리더십을 통해 안정적인 정국운용을 보여주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5.6	5.5	3.7	-1.8	2.8
재정수지 / GDP	0.6	1.2	-0.6	-5.8	-6.3
소비자물가상승률	4.6	7.1	11.5	7.1	5.5

자료: IMF, EIU.

□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 회복 등으로 2010년 경기 회복 전망

- 남아공 경제는 2008년 들어 국제원자재 및 식품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급등, 남아공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력공급 불안정 심화 등에 따른 산업 생산량 및 민간 소비의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7%로 둔화됨.
- 2009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국내외 수요감소로 수출 및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남아공 경제는 마이너스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더불어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 회복 등의 효과로 2.8%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될 전망

- 2008년 4월 법인세율 인하(29%→28%)로 인한 세수감소,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08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6%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들어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5.8%로 확대됨.
- 전력시설 확충 및 2010년 월드컵개최를 위한 치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규모 대비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될 전망

- 2008년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 등 국제시장의 불안정한 요소로 남아공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5%를 기록하였음.
-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의 가중치를 줄인 새로운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식이 200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1%로 둔화되었지만, 생산자물가상승률은 16.4%에 이르렀음. 2010년에는 국제상품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산업구조

-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수산업 위주의 1차 산업 또는 석유, 광물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남아공은 제조업, 금융업, 광업, 건설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산업구조(2009년 기준): 서비스업 64.4%, 제조업 32.1%, 농업 3.5%

□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

- 고도의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남아공은 국내 수요에 비해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잔여 전력을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등 남아프리카 여러 국가 앞으로 수출하였음.
-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전력시설 확충을 간과하여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에 처해있는 실정으로, 특히 광업 부문에서는 전력공급 불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Eskom은 2007년부터 핵심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기타지역에 대해 순환방식의 전력공급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부족으로 2008년부터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앞 잔여전력 수출도 축소하고 있어 남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전력 부족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한 편인 짐바브웨 및 스와질랜드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됨.
- 남아공 정부는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Eskom의 독점적인 전력공급체제에서 벗어나 민영기업의 전력산업내 진입을 허용하고, 지역 전력 배전소를 육성하는 등의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을 분리 운영하는 전력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진행중임. 이는 Eskom을 부분 민영화하려던 계획보다 완화된 구조조정안이지만, 향후 전력산업내 경쟁구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의 경직성, 숙련 인력의 부족

- 남아공 정부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남아공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된 편임. 고용 안정을 위해 해고절차도 까다롭게 설정된 관계로 직원의 해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흑인 정권 출범 이후 숙련된 백인 인력의 해외이주로 남아공은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유출인력의 복귀,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성장 잠재력

□ 광물자원 부국: 금, 형석 세계 1위, 크롬, 망간 세계 2위

- 남아공은 원유, 보크사이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크롬은 전 세계 매장량의 36.7%, 망간은 24.1%, 형석은 17.8%, 금은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보유국임.
- 이외에도 크롬철, 규산, 알루미늄, 질석,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몬 등 55종 이상의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양호한 인프라 및 제도로 오랜 기간 선진국의 주요 투자 대상

- 남아공은 해상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아프리카 전체 철도의 80%를 차지하는 잘 발달된 인프라,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경제적·기술적으로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라는 점 등의 비교적 유리한 투자여건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 되어왔음.
- 1994년 4월 만델라 대통령의 흑인정부 출범이래 적극적인 경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개발중심의 투자와 더불어 외자유치, 신규고용 창출 등을 위해 민간 주도의 공산품 수출을 늘리고 기술이전을 획득할 수 있는 제조업 투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음.

□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금융 허브 역할

- 남아공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남아공의 금융산업은 남아공 총 GDP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최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해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화거래 또한 상당부분 자유화하였음.
- 남아공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남아공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바클레이스를 비롯한 해외 메이저 금융기관들은 남아공 금융회사 지분취득을 통해 남아공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다. 정책 성과

□ 2010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통한 경제성장 및 국가이미지 제고

-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아프리카국 최초 월드컵 개최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치안·통신·운송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없이 개최되었으며, 월드컵 기간 남아공 방문 관광객도 당초 기대했던 30만 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됨.

- 40만~50만 명 정도의 해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며, 관광객당 숙박기간 및 평균소비지출액도 예상했던 18일, 3만 란드(3,930달러)를 모두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2010년 남아공 GDP 성장률은 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개최 준비 과정에서 경기장 건설, 통신망 정비, 전력확충 등 인프라가 확충(600억 달러 규모)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남아공은 수십억 인구가 시청하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치안 및 행정부문의 안정성을 각인시키고, 아프리카 최대경제국이라는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음.
- FIFA가 집계한 2006년 월드컵의 누적 시청자수는 26.29십억 명임.

□ 증가하는 전력수요 충족위해 전력 생산시설 확충 계획

- 전기공급 지역의 확대와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전력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의 혼선으로 지난 수년간 전력시설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초과전력 생산능력이 세계 기준 15%에 못 미치는 8%에 불과한 실정임.
- 전력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는 2017년까지 1,500억 란드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2,000MW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전력시설 생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Eskom은 현재 4,500MW 규모의 Medupi 화력발전소(석탄)를 건설중으로, 2011년부터 750MW의 전력을 부분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며 2015년 1월부터 100%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또한 5,400MW 규모의 Project Bravo 화력발전소(석탄)도 현재 건설중으로 2013~14년부터 전력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 고갈되는 석탄 및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계획중으로, Western Cape에 지어질 3,500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현재 Areva(프랑스)와 Westinghouse(미국)가 입찰과정 중에 있으며,

동 발전소는 2016년에 완공될 예정임. 남아공 정부는 향후 20,000MW의 전력을 원자력으로 조달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의 비중을 현재 5%에서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이외에도 양수 수력발전 형태인 Project Lima 발전소도 2014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1,500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330MW 규모의 Ingula 발전소도 2012년부터 가동 예정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13,745	-20,572	-20,084	-11,295	-17,421
경 상 수 지 / GDP	-5.4	-7.3	-7.1	-4.0	-5.0
상 품 수 지	-4,195	-5,741	-4,448	534	-359
수 출	65,825	75,920	86,118	66,542	71,636
수 입	70,020	81,661	90,566	66,009	71,995
외 환 보 유 액	22,720	29,234	30,238	32,432	43,442
총 외 채 잔 액	35,549	43,610	41,943	40,237	43,596
총 외 채 잔 액 / GDP	13.9	13.9	15.2	14.0	13.1
D S R	6.5	6.6	4.3	8.1	7.6

자료: IFS, EIU.

□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지속되고 란드화 약세로 인해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5.4%에서 2008년 7.1%로 확대됨.
- 2009년 세계경기침체로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역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경기침체로 무역 규모 큰 폭으로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수요의 급락으로 2009년 남아공 무역 규모는 크게 위축되었음. 2009년 수출은 665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2.7%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66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7.1% 감소하였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하향안정세

- 총외채잔액은 2007년부터 400억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안정적인 총외채잔액에 비해 GDP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8년 15.2%에서 2010년에는 13.1%로 하락하며 외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양호한 외채건전성

- 1986년, 1987년, 1990년의 총 3회에 걸친 리스케줄링 이후 추가적인 리스케줄링이나 채무불이행 사례가 없음.
- 2009년 말 총외채잔액은 402억 달러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14.0%), DSR(8.1%)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속적인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편임.

□ 외환보유액 증가세

- 2009년에는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FDI 유입 증가세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32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월드컵을 통한 관광수입 등의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33.9% 증가한 43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08년 9월 음베키 대통령 사임

- 2007년, 현직 대통령인 제이콥 주마(Jacob Zuma)와 ANC 총재자리를 두고 권력싸움을 벌이던 도중, 무기거래에 의한 불법 자금수수 사실이 드러나며 퇴임의 압력을 받음.
-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정권 수립 당시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음베키는 1999년 제2기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2004년에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8년 9월 21일 사임함.
- 음베키(Thabo Mbeki)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이후 남아공 국회는 간접선거에서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부의장 칼레마 모틀란테(Kgalema Motlanthe)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함.

□ ANC와 반ANC 간의 대결

- 음베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반발하여 국방장관직을 사임한 모슈아 레코타(Mosiuoa Lekota)와 음바지마 실로와(Mbhazima Shilowa) 전 가우텡주 지사가 주축이 되어 지난 2008년 12월 ANC 비주류로 이루어진 신당 COPE(Congress of the People) 창당을 결의함.
- COPE의 전당대회에 헬렌 질레 (Helen Zille) 민주동맹 (DA) 당수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레코타 COPE 의장 또한 다른 야당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키로 해 남아공 정국은 ANC 대 반ANC의 대결구도로 짜이게 됨.
- ANC와 COPE의 분당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당내 두 정치거물인 음베키 전 대통령과 주마 의장의 대립, 음베키 전 대통령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대한 ANC내 주류세력의 불만, 마지막으로 남아공 내 최대 부족이며 주마 의장의 출신부족이기도 한 Zulu족과 그 외 소수 부족 간 갈등 등이 분당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ANC는 1994년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남아공 의회의 주도적 위치를 점한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됨.
- 2009년 4월 22일 총선결과, ANC는 2/3에 약간 못 미치는 의석수를 확보하며 향후 정책 입안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5월 주마 대통령 취임

- 2009년 5월 9일,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이 취임하였음.
- ANC 내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진보성향의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 COSATU)와 남아공 공산당(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SACP)의 영향력 확대로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공급 등 진보세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데 따른 부담으로 경제정책의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경기가 회복되어 국민의 저항이 줄어들면 진보적 경제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 외국인투자 유치, 일자리 확대 등 주요한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사회동향

□ 실업률은 남아공의 큰 사회적 문제

- 2008년 3월 말 기준 남아공 총실업자수는 410만 명으로, 공식실업률은 22.9%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24.0%까지 증가하는 등 남아공의 실업률은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
- 높은 실업률, 특히 흑인계층에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업문제는 인종간 갈등 원인 및 높은 범죄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심각한 빈부격차

- 남아공은 세계 최고의 소득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국가중 하나임. 교육기회 부재로 미숙련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흑인인구의 3분의 2 가량이

월 250달러 미만의 저임금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 백인인구를 중심으로 부가 편중되어 남아공 총소득의 3분의 2가 상위 20% 계층에 집중됨.

- 인종차별정책 폐지 이후 흑인정권의 지속적인 통합정책으로 인해 인종간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 1960년 기준 백인과 흑인의 총 가처분 소득 보유 비율이 각각 69.4%, 23.2%에서 2007년 40.4%, 46.5%로 개선되었음. 하지만 같은 인종 그룹내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높은 실업률과 함께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AIDS 감염률

- 남아공내 AIDS 환자 및 HIV 보균자 수가 600만 명 이상으로 남아공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고 있음. AIDS 확산으로 남아공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90년 64세에서 2008년 50세로 감소하였음.
- AIDS 보균 인구의 증가는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져 소비 감소, 시장 축소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됨.

3. 국제관계

□ 대외협력 관계 강화 모색

- 1993년 UN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이후 남아공은 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자간 무역체제뿐만 아니라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도 적극 추진중임. 또한 아프리카 경제대국으로서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 경제 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음.
- 또한 2001년에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를 결성, 아프리카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SACU와 EU간 FTA 협상, 미국, 중국, 인도 등과의 FTA협상을 진행중이며, 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특혜무역협정 체결 이후 FTA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임.

□ 국제사회 위상 강화

- 현재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이익을 대표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는 목표하에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0. 7)	B2 (2009. 2)
OECD	3등급 (2009. 10)	3등급 (2008. 10)
S&P	BBB+ (2008. 11)	BBB+ (2005. 11)
Moody's	A3 (2009. 7)	Baa1 (2005. 1)

□ 주요기관의 국가신용 평가등급

-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남아공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바, 2010년 6월 말 현재 S&P는 BBB+ (Negative), Moody's는 A3 (Stable), Fitch는 BBB+ (Negative)를 부여하고 있으며, OECD는 3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OECD: 3등급 ('08.10) → 3등급 ('09.10)
- Euromoney: 54/185('08.9) → 47/186('09.9) → 53/186('10.3)
- ICRG: 79/140('08.11) → 79/140('09.12) → 59/140('10.5)
- I.I: 52/174('08.3) → 52/178('09.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최고부보율 적용
-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1일 수교 (북한과는 1998년 8월 10일)

- 1995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은 다각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정치 및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아공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매년 증가추세임.
- 1995년 7월 항공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이중과세방지 및 소득세탈루방지협정(1995.7월), 투자증진및보장협정(1995.7월) 등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범공조조약을 체결함.

□ 주요협정: 항공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1995), 투자보장협정(199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1,753	1,397	1,082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수 입	1,766	2,159	1,172	금, 은, 백금, 고철
합 계	3,519	3,556	2,254	

자료: 한국무역협회.

-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무역의 최대 교역국이며, 2010년 3월 기준 한국은 남아공의 13위 수출국, 15위 수입국임.
- 2009년 들어서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 남아공 수출입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6%, 45.7% 감소함.

□ 해외직접투자: 1.7억 달러(2010년 6월 누계)

-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직접투자는 2010년 6월 말 누계기준으로 46건, 169,423천 달러임.
-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1.2억 달러), 제조업(3,060만 달러) 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VI. 종합 의견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금융업 및 관광산업의 성장, FDI 확대, 건설경기 호조세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출 증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 FDI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된 성장이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집권당인 ANC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아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방 및 아프리카 주변국가와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정치·경제 중심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각 산업 부문의 고른 발전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DSR도 한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편임. Moody's는 2009년 7월에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A3로 한단계 상향조정하기도 하였음.

조사역 고 안 나 (☎02-3779-6665)
 E-mail: anna@koreaeixm.go.kr